"제2공항 대선 공약 채택되도록 노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어제 제주 방문 피력
"현 제주공항 확장 곤란… 신공항 건설 불가피"
"제주4·3문제 해결에 더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내년 대선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3일 말했다. 또 제주 4·3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현) 제주공항의 한계치는 뚜렷하고, 제주-김포 노선이 가장 붐비는 노선이 된지는 오래다"면서 "현 제주공항 확장은 어렵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놓고 환경부가 검토를 시작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무산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는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며 "(다만) 제2공항은 대선과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당 대선 후보가 (제2공항 건설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 출범 이후 호남에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며 아픈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처럼, 제주에서도 4·3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주4·3 배·보상 문제 해결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가진 분들이 국가지도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가 선출돼 대통령에 당선되면 (4·3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그런 행보를 하시라고 꼭 권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둘러본 뒤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고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디어의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2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양조훈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정 공백 우려 속 대선 대처 미온적"

양병우 의원 "공약 발굴 공동 TF 구성하자" 제안

/도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나왔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대선 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특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원 지사의 대권도전 행보와 행정부지사 교체로 인해 신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권한 대행 체제가 예상되고 있다.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은 제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때로, 다른 지자체는 이미 20대 대선공약 기획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과제 연구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선 공약 발굴 태스크포스를 도의회와 함께 구성할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서 합의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도 다가올 도정 공백으로 인해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관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데 곧 도지사가 사퇴하고 현 관광국장도 명예퇴직한다"며 주요 관광 정책을 결정할 책임자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주문하며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가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인데…(남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종합계획을 제대로) 검수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허법률 실장은 "지금의 도정은 격변기 속에 있지만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지사와 토론을 하면서 도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16회 제주포럼 개막… 팬데믹 등 논의

>>1면에서 계속

또한 경제학 분야에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청년 대표들과 함께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프랑수와 올랑드 전 프랑스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개회식과 전체세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에 앞서 열리는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 세션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원희룡 도지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제 및 국가적,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G20 출범의 주역이었던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태국 최연소 총리이자 아세안의 상징적 리더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화상으로,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공식세션 외의 특별기획으로 주한 아랍·이스라엘 대사단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중동평화 과정이 남·북한 평화 구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국외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로명, 김성환 등 전직 외교장관 간담회도 개최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은 냉전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과 4·3과 정의·화해·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의 폐막세션, 폐막선언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주포럼의 모든 세션은 유튜브,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개회식을 비롯해 모든 세션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이프 제주' 안전문화 로고송·뮤비 어제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세이프 제주(SAFE JEJU)' 안전문화 로고송을 제작해 뮤직비디오와 함께 23일 공개했다.

로고송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름철 폭염 예방 활동, 어린이 보호구역 감속·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점검 수칙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경쾌한 8비트 팝 형식의 멜로디로 구성된 로고송은 신인가수 코요(KOYO)가 불렀다. 음원과 동영상은 도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영상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운행버스 활용 제2공항 홍보 '논란'

도, '2025년 건립 목표·공항 확장 NO' 영상 송출
"도민·관광객 세뇌 수준"… 버스 이용객 불만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운영 중인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립 홍보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 둔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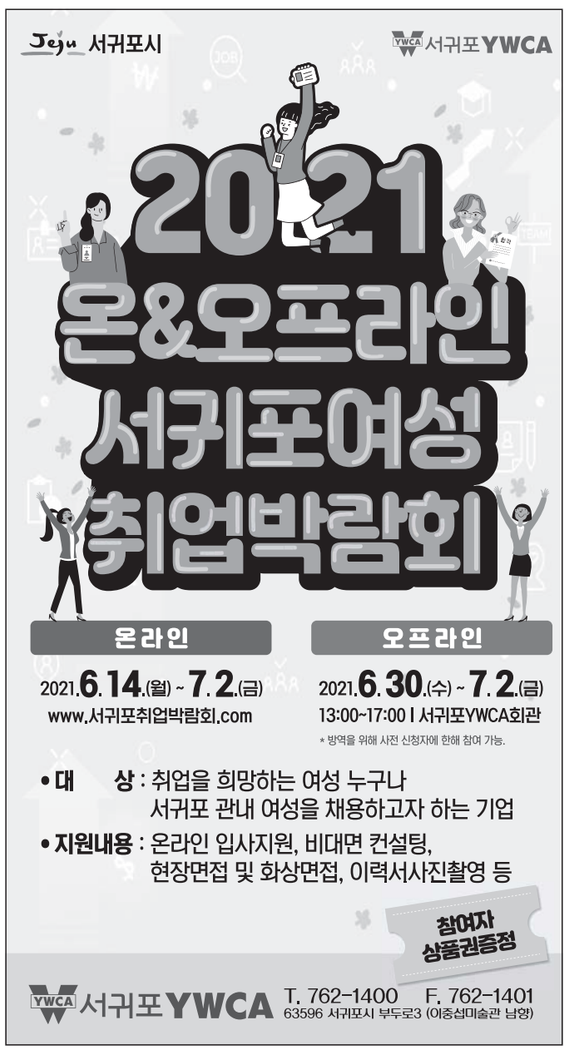
23일 제1131호선(5·16도로)을 오가는 제주시~서귀포시 간의 준공영 버스에서 확인할 결과, 제주도 산하 기획단인 공항확충지원단이 3~4분 간격으로 BIS시스템을 통해 '2025년 제2공항 2(이)륙' '공항확장 NO'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영상물에는 '두번째 하늘길 안전하게 2(투)자'하자는 것과 교통 혼잡, 기존 공항의 활주로 포화, 안전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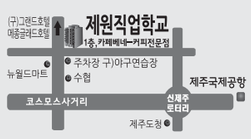
이에 승객 A씨(제주시 아라동)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제2공항을 반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제2공항 건설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수분 간격으로 나오면서 주 이용객인 도민과 관광객을 세뇌시키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제주도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BIS시스템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며 "6월 30일 기한이지만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는 현재 환경부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재보완서를 검토 중인 사안으로 내달 최종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 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순서 : 전화상담 → 교육신청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기기능사(필기+실기)취득과정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 2021.07.03~2021.09.26
교육시간 | 15시~22시(점심시간 포함)
교육내용 |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
문 의 |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 의 |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 의 | 725-5545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